

2011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한문영역 한문과목 해설지

[정답]

| | | | | | | | | | | |
|-----|----|----|----|----|----|----|----|----|----|----|
| 문 항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정 답 | ④ | ② | ② | ③ | ② | ① | ② | ① | ⑤ | ③ |
| 문 항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정 답 | ③ | ⑤ | ⑤ | ① | ④ | ⑤ | ② | ② | ⑤ | ③ |
| 문 항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정 답 | ① | ④ | ① | ④ | ④ | ⑤ | ① | ③ | ① | ④ |

[해설]

1. [정답] ④

[해설] 그림과 대화내용을 보고, 의미에 알맞은 한자 알기

① 走(주)달리다 ② 步(보)걷다 ③ 泳(영)헤엄치다 ④ 飛(비)날다 ⑤ 捕(포)사로잡다

2. [정답] ②

[해설]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에 알맞은 한자 알기

① 奔(분)달리다⇒讀(독)읽다 ② 聽(청)듣다 ③ 投(투)던지다⇒食(식)먹다

④ 伏(복)엎드리다⇒步(보)걷다 ⑤ 起(기)일어나다⇒臥(와)눕다

3. [정답] ②

[해설] 제시한 조건에 적절한 한자 찾기

▷ 총획 '張(장)'(11획), 뜻 '문책, 책임 등에 쓰임', 부수는 아래편에 위치

① 基(기)터, 土-11획 ② 責(책)꾸짭다, 貝-11획 ③ 問(문)묻다, 口-11획

④ 策(책)채찍, 竹-12획 ⑤ 賃(임)품팔이, 貝-13획

4. [정답] ③

[해설] 형성자의 원리와 한자의 독음 알기

▷ 手 + 出(출) = 拙(졸) 못나다

▷ 水 + 干(간) = 汗(한) 땀

5. [정 답] ②

[해 설] 삽화에서 제시한 한자어 알기

- ① 會社(회사) ② 書店(서점) ③ 眼科(안과) ④ 銀行(은행) ⑤ 藥局(약국)

6. [정 답] ①

[해 설] 삽화를 보고 빠진 한자 유추하기

▷ 求人(구인) : (일 할) 사람을 구함

- ① 求(구)구하다 ② 救(구)건지다 ③ 球(구)공 ④ 具(구)갖추다 ⑤ 俱(구)함께

7. [정 답] ②

[해 설] 일상생활 속 표지판의 의미와 관련된 한자어 찾기

- ① 清廉(청렴) ② 配慮(배려) ③ 靜肅(정숙) ④ 實利(실리) ⑤ 競爭(경쟁)

8. [정 답] ①

[해 설] 삽화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한자어로 찾기

- ① 譯者(역자) ② 著者(저자) ③ 定價(정가) ④ 發行處(발행처) ⑤ 連絡處(연락처)

9. [정 답] ⑤

[해 설] 사자성어 퍼즐의 공통부분에 들어갈 한자 찾기

▷ 세로열쇠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처지 ⇒ 進退兩難(진퇴양난)

▷ 가로열쇠 :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힘들 ⇒ 孤掌難鳴(고장난명)

10. [정 답] ③

[해 설] 제시한 문장의 내용에 알맞은 한자 찾기

▷ 竹身毛首, 剛柔其質(죽신모수, 강유기질) : 대나무로 된 몸에 털로 된 머리는 강하고 부드러운 것이 그 바탕이다.

- ① 服(복)옷 ② 紙(지)종이 ③ 筆(필)붓 ④ 墨(묵)먹 ⑤ 鏡(경)거울

11. [정 답] ③

[해 설] 대화를 보고 빠진 한자어 유추하기

- ① 公平無私(공평무사) ② 正正堂堂(정정당당) ③ 公明選舉(공명선거)

- ④ 滅私奉公(멸사봉공) ⑤ 嚴正中立(엄정중립)

12. [정 답] ⑤

[해 설] 시의 내용과 관계있는 성어 찾기

- ① 千載一遇(천재일우) : 좀처럼 얻기 어려운 기회를 만남
- ② 我田引水(아전인수) :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
- ③ 首丘初心(수구초심) : 고향을 그리는 마음
- ④ 門前成市(문전성시) : 세력이 있어 찾아오는 사람이 매우 많음
- ⑤ 鶴首苦待(학수고대) :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13. [정 답] ⑤

[해 설] 제시한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성어의 뜻 찾기

- ▷ 讀(독), 耳(이), 表(표), 裏(리), 牛(우), 晝(주), 經(경) ⇒ 牛耳讀經(우이독경)
- ▷ 牛耳讀經(우이독경) : 쇠귀에 경 읽기. 아무리 가르치고 알려주어도 알아듣지 못함

14. [정 답] ①

[해 설] 대화에 나온 ‘同音異議語(동음이의어)’를 구분하기

- ▷ 感傷(감상) : 하찮은 일에도 슬퍼져서 마음이 상함
- ▷ 鑑賞(감상) : 예술 작품을 잘 살펴보고 즐기고 평가함

<15~16번 독음 및 해석>

子學出於我，子善用而我不能用，真所謂 青出於藍而青於藍也

자학출어아, 자선용이아불능용, 진소위 청출어람이청어람야

그대의 학문은 나에게서 나온(배운) 것인데, 그대는 잘 이용하고 나는 이용할 줄 모르니, 참으
로 이른 바 ‘쪽풀에서 나온 푸른색이 쪽풀보다 푸르다’하겠다.

15. [정 답] ④

[해 설] 허자의 쓰임 알기

- ▷ 於(어) = 于(우), 乎(호)

16. [정 답] ⑤

[해 설] 문맥상 빠진 문장 유추하기

- ① 欲速則不達 : 빨리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
- ② 言勿異於行 : 말은 행동과 다르게 하지 말라

- ③ 隨友適江南 : 친구따라 강남간다
- ④ 水至清則無魚 :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17. [정답] ②

[해설] 글의 내용과 관계있는 성어 찾기

- ① 衆惡之, 必察焉 : 못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 ② 巧言令色, 鮮矣仁 : 교묘한 말씨와 꾸민 낯빛을 가진 사람 중에는 인(仁)한 사람이 드물다
- ③ 君子憂道, 不憂貧 :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 ④ 己所不欲, 勿施於人 :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 ⑤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 가난하고 또 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8~19번 전문 해석>

승상 조고가 권력을 마음대로(독점)하고자 하나 못 신하가 듣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시험하기를, 사슴을 가지고 이세에게 바치며 말하기를 "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세가 웃으며 말하기를 "승상이 틀렸구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다니"하면서, 좌우(신하)에 물어보니 어떤 이는 침묵하고, 어떤 이는 말하였다.

18. [정답] ②

[해설] 문맥상 한자어가 가리키는 내용 찾기

▷ 좌우(左右)는 좌우의 여러 신하를 의미하므로, ‘군신(群臣)’을 가리킨다

19. [정답] ⑤

[해설] 문장의 내용 파악

- ▷ ‘或默’ : 어떤 이는 침묵하다
- ▷ 이세황제의 물음에 침묵한 것은 조고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20~22번 전문 해석>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학문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될 길이 없으니 이른바 학문한다는 것은 또한 이상한 별 물건이나 일이 아니라. 다만 부모가 되어서는 마땅히 사랑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효도하며, 신하가 되어서는 마땅히 충성하고 부부가 되어서는 마땅히 구별이 있으며, 형제가 되어서는 마땅히 우애롭고 젊은이가 되어서는 마땅히 어른을 공경하며 친구가 되어서는 마땅히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 [정답] ③

[해 설] 문장의 의미 파악

21. [정 답] ①

[해 설] 문맥상 한자의 풀이

▷ ㉠事 : 섬기다 ⇒ 일

22. [정 답] ④

[해 설] 문맥상 빠진 한자 유추하기

▷ 爲少者當敬(長) : 젊은이가 되어서는 마땅히 어른을 공경하다

<23~25번 전문 해석>

(가) 우수수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를

성긴 빗방울 소리로 잘못 알았네

중 불러 문간 나가 보라 했더니

시내 남쪽 가지에 달 만 걸려있다 하네

(나) 옛 친구 서쪽 황학루에서 이별하고,

아지랑이 어른거리고 꽃 피는 3월 양주로 내려간다.

외로운 배 먼 그림자 푸른 하늘로 사라지니,

오직 하늘 끝으로 흐르는 장강만 보이는구나.

23. [정 답] ①

[해 설] 한시의 형식과 표현 방식 알기

▷ (가)의 제1구는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 청각적

▷ (나)의 제3구와 제4구는 대우(對偶)가 아니다

24. [정 답] ④

[해 설] 시상전개에 따라서 그림 배열하기

25. [정 답] ④

[해 설] 한시의 감상 이해

▷ 황학루에서 배를 타고 장강을 따라 양주로 가는 '친구와 이별하는 아쉬움'을 노래한 시

<26~27번 전문 해석>

- 오직 어진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 최상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만물에게 이로우면서도 다투는 일이 없고 못사람들이 싫어하는(낮은) 곳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거의 가까운 것이다.

26. [정 답] ⑤

[해 설] 문장에서 한자 풀이

- ▷ 惡 1.나쁘다,악하다 (악) 2.미워하다(오)
- ▷ 若(약) 1.만약 2.~같다

27. [정 답] ①

[해 설] 해석순서

- ▷ 못(衆)사람들이(人之) 싫어하는(惡) 곳에(所) 위치한다(處).

<28~30번 전문 해석>

이상의가 아이였을 때에 성품이 몹시 경솔하여, 앉아서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말만 하면 번번이 망령되게 말했다. 부모가 그것을 걱정하여 자주 책망하는 말을 하시니, 공은 작은 방울을 허리에 차서 스스로를 경계하여 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욱 힘차게 경계하고 삼가서, 나가서나 들어와서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일찍이 방울을 떼어낸 적이 없더니, 오늘 약간을 줄이고 내일 약간을 줄여서, 중년이 지난 후에는 온전히 천성적인 것처럼 되었다. 후인 중에 경박한 자제를 경계하려는 사람은 꼭 이 공을 들어서 모범으로 삼았다고 한다.

28. [정 답] ③

[해 설] 한자어의 짜임

- ▷ 輕率(경솔) : 행동이 진중하지 않고 가벼움(병렬)
- ▷ 正直(정직) : 바르고 곧다(병렬)

29. [정 답] ①

[해 설] 한자어의 독음

- ▷ 妄發(망발)

30. [정 답] ④

[해 설] 어구풀이

- ▷ ㉠一分 : 일부분. 약간